

안동권문의 사시(四始)

사시(四始)는 조선시대 안동권문의 선조들이 어느 문중보다도 최초로 이룬 네 가지를 일컫는 말이다. 사시는 기로소(耆老所)와 대제학(大提學)과 호당(湖堂, 독서당讀書堂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족보인 성화보(成化譜)를 말한다.

먼저 기로소이다. 기로소 입소 자격은 연령이 70이상이고 정 2품 이상이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기(耆)'는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耆),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당나라 송나라 시대와 고려 시대에는 기영회(耆英會)가 존재했다. 조선은 태조 때 경로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했다. 조선시대 들어서 가장 먼저 기로소에 그 이름을 수록한 인물은 안동권문의 권중화(權仲和, 북야공파 14세)와 권희(權僖, 추밀공파 15세)이다. 왕이라 해도 나이 70이 안되면 입소할 수 없는 최고 영예의 자리였다. 때문에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과 장수와 복록을 누리라는 것이어서 개인의 영예는 물론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태종 때는 전함 재추소(前銜宰樞所)로 하였다가 1428년 세종 10년에 예조에서 “기로 재추소(耆老宰樞所)와 기로소(耆老所)의 두 칭호로써 상정(詳定)하여 칭호를 내릴 것”을 보고한다. 이에 세종은 상정소(詳定所)에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니, 이직(李穡)은 “마땅히 전함 양부(前銜兩府)라 일컬어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기로소(耆老所)라 일컬어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변계량(朴季良)은 “치사 기로소(致仕耆老所)”라고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초(鄭招)는 “조청소(朝請所)”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세종은 변계량의 의견을 따라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쳤다.(세종 10년 2월 10일 임술) 기로소가 자리했던 터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앞 쪽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다. KT건물 길 건너편이다.

두 번째는 안동권문은 조선 최초로 대제학을 배출했다. 대제학은 문형(文衡)이라고도 불렀다. 문형은 조선의 학문을 관장하는 기관의 최고 수장을 말한다. 조선 최초로 대제학에 오른 인물은 바로 양촌(陽村) 권근(權近, 추밀공파 16세, 1352~1409)이다.(典故大方 文衡錄) 대제학은 조선시대 벼슬의 꽃이었다. 대제학은 문과 출신 관료의 최고의 영예로 간주 될 만큼 권위와 명망이 높았다. 수많은 관료 중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인물이 대제학을 역임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리보다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안동권문에서는 양촌 권근 이후 양촌의 둘째 아들 문경공(文景公) 권재(權載, 17세, 1387~1445)와 문경공의 아들 소한당(所間堂) 권람(權攄, 19세, 1416~1465) 그리고 권유(權維, 추밀공파 27세, 1633~1704) 등 4명이 대제학을 지냈다.

세 번째는 매헌공(梅軒公) 권우(權遇, 추밀공파 16세, 1363~1419)의 둘째 아들 권채(權採, 추밀공파 17세, 1399~1438)가 호당(湖堂)에 처음으로 선발되었다. 호당은 독서당(讀書堂)으로도 불렀다. 독서당은 세종 때 창설했는데 연소한 자로 문장에 능숙하고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 오랫동안 휴가를 주어서 강학에 전심하게(장가독서長暇讀書) 하는 제도이다.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도 부른다. 독서당터는 성동구 옥수동 옥수국동아파트 입구에 위치한다. 독서당터를 가로지르는 도로명은 독서당로로 명명되어 있다. 성동구에 따르면 현재 '독서당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옥수동주민센터의 신축 건물이 금년 8월말이나 9월초에 완공될 예정인데 청사가 준공되면 5.6층에 독서당 전시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족보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이다. 성화보는 1476년(성종 7년)에 목판으로 제작했으며 서거정이 서문을 썼다. 명나라의 연호 성화(成化) 연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성화보라고 명명했다. 조선 초기에 양촌 권근의 아



안동권씨 족보 성화보

들인 문경공 권재가 중국의 “소씨보蘇氏譜”를 모방하여 가보소첩(家譜小牒)을 만들고 문경공의 아들 소한당 권람이 자료를 더 수집하고 보완하여 편찬을 추진했으나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별세했다. 이에 양촌의 외손자인 대제학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상주

관관 박원창(朴元昌)과 대구부사 최호원(崔潁元)의 도움을 받아 다시 편집, 교열한 뒤 1476년 경상감사 윤호(尹壕)를 시켜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 성화보는 1565년에 발간된 문화유씨(文化柳氏) 족보인 가정보(嘉靖譜) 보다 90여년이나 앞선 것이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이 책을 왜 간행하게 되었는지 그 뜻을 밝혔다. “옛날 중국에는 종법(宗法)이라는 것이 있어 소목(昭穆)의 순서를 정하고 적손(嫡孫)과 지손(支孫)을 구별하여 백세(百世)가 지나도 그 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었는데, 대가 멀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자 국가에서 이를 관장할 수 없어 이 법을 폐지하였다.

그 뒤 자기의 가계는 스스로 밝혀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 보첩제도가 생겨났다. 이는 조상을 찾아 조상으로 섬기고 친척과 타인을 구별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수(壽)·당(唐) 이후에는 국가의 기관으로 도보국(圖譜局)을 설치하여 관리를 두고 문서를 제작하여 훈인의 사실과 과거의 급제, 천거 등을 모두 기록하여 정사에 참고하게 한 것이 보첩의 시조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종법도 없고 보첩도 없어서 겨우 몇 대만 지나면 조상의 명호를 잊어버리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어 친족과 조상을 존경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효제(孝悌)를 권장하고 예속(禮俗)을 성취시키고자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소원한 상계(上系)에 있어서는 참고할 문헌이 있는 것만 찾아서 기재하고, 참고할 수 없는 것은 요약하여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며, 대수가 많지 않아서 근거가 있는 것은 모두 찾아서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조선은 유교국가이다. 유교국가는 정치적으로 인정(仁政)을 구현하고 문화적으로 예악문명(禮樂文明)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의 비전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한국 최초의 족보 안동권씨 성화보는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백성들에게 효제(孝悌)를 권장하고 예속(禮俗)을 성취시키고자 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성화보는 조선 유교화(儒敎化)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은 1392년 건국되면서 유교국가로서 국가이념이나 제도 등은 구축하고 있었으나 건국 후 80여년이 지난 15세기 중반까지 조선 사회는 유교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거정이 토로하듯 조선에는 유교화를 추진할만한 한 제도적 장치인 종법도 보첩제도도 없는 비유교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법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효제를 권장하고 유교적인 예악문명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이에 안동권문에서 성화보를 제작하여 모든 백성(百姓)들에게 효제를 실



세종문화회관 앞쪽 광화문광장 내 기로소 표지판



광화문광장 내 기로소 표지판에서 본 KT 건물 방향



독서당터

현할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화보를 제작한 안동권문에서 조선 유교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 선조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손들도 사이가 멀어져 길거리에서 혈족을 만나도 낯선 사람 처다보듯이 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니 족보를 만들어 조상을 찾아 조상으로 섬기고 친척과 타인을 구별하여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서거정 서문)으로 족보를 편찬했다는 얘기다.

평창군사(平昌郡事) 권옹(權雍, 추밀공파 17세)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시조 묘소의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얻어 백방으로 심방(尋訪)한 끝에 드디어 시조 묘소를 찾았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조 묘소를 찾은 사건(1470년)과 성화보를 편찬(1476년)한 사건이 성화(成化) 연간에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창공은 왜 하필 그 시점에 시조 묘소를 찾아야 했을까. 물론 풍산유씨 유정하가 평창군사 묘표에서 말하듯이 공이 간절히 선조를 위하여 생사를 돌로 하지 않은 혈성(血

誠)이 크게 작용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이해한다. 그러나 태사공의 묘도가 폐패한 것은 내력이 오래인데 그 동안 태사공의 자손이 이미 나라 안에 두루 퍼져 명공(名公)과 거경(巨卿)으로 조정에 드러난 이가 많았음에도 600년 후에 태어난 평창공이 홀로 지사(地師)와 함께 답사하여(유장하 평창군사 묘표) 시조 묘소를 찾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역사적인 사건은 조선 유교화의 방향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있다고 본다. 시조는 족보 편찬의 기점이자 효제 실천의 기원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조는 문화적 존재로 부각될 뿐만 아니라 예악문명의 상징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었으리라. 안동권문이 명문거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한국 최초의 족보 성화보와 시조 묘소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안동권문에서 최초로 이룬 사시(四始)는 후손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다. 그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2020年 4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원

권건식(서울금천) 30,000	권석조(대구) 30,000	권용기(서울강남) 30,000	권영복(서울용산)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규현(안동 와룡면) 30,000	권석호(합천) 30,000	권춘근(전주) 30,000	권용호(포항) 30,000	영주총친회 200,000
권기대(대구 달서구) 30,000	권수원(상주) 30,000	권혁수(안동 물한리) 30,000	권정환(상주) 30,000	북야공파 400,000
권기성(서울영등포) 30,000	권영래(아산) 30,000	권혁주(전주) 30,000	권중봉(거제) 30,000	3月 정정 내용
권기영(경기부천) 30,000	권영조(안동) 30,000	권형순(서울금천) 30,000	권춘기(구미) 30,000	부산총친회(권성용 회장) 2,330,000
권기택(완주) 30,000	권오규(안동) 30,000	2020년 선납자	권태현(창원) 30,000	부산총친회 2,000,000 이사 회비 300,000 권성용 회장 30,000
권갈상(강릉) 30,000	권오용(서울송파) 30,000	권민호(산청) 30,000	권혁원(수원) 30,000	
권병호(서천) 30,000	권오현(서울구로) 30,000	권영배(대구 남구) 30,000		•납부기간 : 3. 26. ~ 4. 24. •총 납부자 30명/지사 2곳 •총 1,500,000원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19년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2월호와 함께 2차 발송하였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중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중회)

♣ 문의전화 : 02-2695~2843-4

안동권씨 대중회